

# 광주 제조업체 95% “상반기 투자 축소·보수적 경영”

## 광주상의, 투자계획 조사

생산비용·재고 증가 등 원인 53% “신기술 개발 투자 못해” “규제완화 등 정부 지원 절실”

광주지역 제조업체 대부분은 생산비용 증가를 이유로 올 상반기 계획했던 투자를 축소하거나 보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광주지역 12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제조업 투자계획 조사’를 실시했

다. 조사 시점(3월) 기준으로 당사의 투자 활동이 상반기 계획 대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들의 95.0%(114개사)가 ‘상반기 계획보다 투자 축소 또는 보수적 입장 지속 중’이라고 답했으며, ‘당초 계획보다 투자 확대 예정’이라는 응답은 5.0%(6개사)에 불과했다.

당초 계획보다 투자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보수적 입장을 지속하는 이유로는 ‘(원자재가 등) 생산비용 증가’ 때문이라는 응답이 41.2%(47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재고 증가 등 수요부진(34.2%, 39개사)’, ‘고금리 등 자금조달

부담(27.2%, 31개사)’, ‘수출국 경기 불확실성(14.0%, 16개사)’, ‘기업규제 등 정책 불확실성(7.9%, 9개사)’ 등 순으로 답했다.(이하 다중응답)

반대로 투자를 확대하는 이유로는 ‘선제적 투자 전략(66.7%, 4개사)’에 따른 것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자금 사정 개선’, ‘(현장업무개선 등)기타’가 각각 16.7%(1개사)를 차지했다.

올해 응답 기업들은 가장 많은 42.5%(51개사)가 ‘시장 확대 및 마케팅 강화’에 가장 우선해 투자할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외에도 ‘생산설비 교체 및 확충(33.3%, 40개사)’,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29.2%, 35개사)’, ‘자동화·전산화 등

공정 개선(27.5%, 33개사)’, ‘인력개발 및 인재 확보(7.5%, 9개사)’, ‘부품 및 자원 개발 투자(6.7%, 8개사)’ 등을 우선시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전체 투자에서 신기술 개발, 공정 개선 등 혁신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으로는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53.4%)이 ‘전혀 투자하지 못하거나’ ‘10% 미만’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들은 당사 투자계획 수립 및 실행 시 ‘투자비용 대비 수익성(61.7%, 74개사)’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현금 흐름 등 이용 가능 자금 상황(29.2%, 35개사)’, ‘기술개발 및 혁신 필

요성(15.8%, 19개사)’, ‘경쟁업체 간 시장 상황(7.5%, 9개사)’, ‘기타(3.3%, 4개사)’, ‘정부 정책 및 인센티브(2.5%, 3개사)’ 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대내외적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데다 고금리·고물가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이어지면서 지역 기업들은 적극적인 투자 및 경영 혁신활동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 확대 및 규제 완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 기아 1분기 영업이익 3.4조 “분기 사상 최대”

### 친환경차 판매 18% 증가

기아가 올 1분기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다.

기아는 올 1분기 △도매 판매 76만515대(-1.0%) △매출액 26조2129억원(10.6%↑) △영업이익 3조4257억원(19.2%↑) △경상이익 3조7845억원(20.4%↑) △당기순이익(비지배 지분 포함) 2조8091억원(32.5%↑)을 기록했다

기아는 1분기 국내에서 전년 대비 2.9% 감소한 13만7871대, 해외에서 전년 대비 0.6% 감소한 62만2644대 등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대비 1.0% 감소한 76만515대를 기록했다.

국내 판매는 스포티지, 쏘렌토, 카니발 등 인기 RV 차종의 판매는 증가했으나 전기차 판매 감소 영향으로 전년 대비 판매가 소폭 감소했다.

해외 판매는 북미와 유럽 등 주요 지역에서 판매를 확대했으나, 인도와 아프리카, 중동 등 일부 신시장 판매가 모델 노후화와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전년 대비 줄었다.

1분기 매출액은 판매 대수 소폭 감소에도 △친환경차와 RV 차량 판매 비중 확대에 따른 대당 판매가격(ASP) 상승 △우호적인 환율 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10.6% 증가한 26조2129억원을 기록했다.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9.2% 증가한 3조425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분기 기준 최대 영업이익에 해당한다.

영업이익률도 13.1%를 올리며 지난해 2분기 달성했던 최대 영업이익률 13%를 경신했다.

기아의 1분기 친환경차 판매는 전기차 성장세 둔화와 하이브리드 수요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하이브리드 판매를 바탕으로 전년 대비 18.1% 증가한 15만7000대로 집계됐다. 전체 판매 중 친환경차 판매 비중도 전년 대비 3.5%p 상승한 21.6%를 달성했다.

기아는 국내 시장에서 쏘렌토, 카니발, 스포티지 등 하이브리드를 활용한 판매 확대를 지속하고, 하반기 EV3 신차와 EV6 상품성 개선 모델 출시로 판매량을 늘릴 계획이다.

최권범 기자

##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스팀 체험 공간 선보

### 5월17일까지 메가박스 주요 지점

삼성전자가 메가박스 주요 지점에서 ‘비스포크 AI 콤보’와 ‘비스포크 AI 스팀’을 만나볼 수 있는 이색 체험 공간을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 25일부터 5월17일까지 메가박스 성수·목동·하남 스타필드·수원 스타필드 4개점에서 히어로 영화 콘셉트의 ‘세상에 없던 그들이 온다, TEAM AI’ 팝업 전시를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생활 속 꿀치거리인 빨래와 청소를 알아서 해치우는 ‘일상 속 히어로’가 콘셉트다.

더러운 빨랫감을 세탁부터 건조까지 한번에 해치우는 히어로로 변신한 ‘비스포크 AI 콤보’와 바닥 먼지와 오염을 무찌르는 ‘비스포크 AI 스팀’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비스포크 AI 콤보’는 울인원 세탁·건조기 제품으로 세탁물 이동 없이 세탁부터 건조까지 한 번에 가능하며, 세탁기와

건조기를 각각 설치할 때보다 설치 공간을 약 40% 절약할 수 있다.

‘비스포크 AI 스팀’은 국내 최초로 ‘물결레 스팀 살균’ 기능을 탑재해, 물결레 냄새와 세균 번식을 우려하는 소비자의 고민까지 해결했다.

제품을 체험하고 스탬프 투어를 완성한 고객에게는 비스포크 AI 가전을 받을 수 있는 스크래치 쿠폰을 증정한다.

최권범 기자

제 1117회 로또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3 4 9 30 33 36	7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
1등	6개 숫자 일치	30억2838만원
2등	5개 숫자+ 보너스 숫자 일치	4832만원
3등	5개 숫자 일치	143만원
4등	4개 숫자 일치	5만원
5등	3개 숫자 일치	5000원

## 이마트 광주점, 체험 콘텐츠 강화 리뉴얼 오픈

### 다이소·올리브영 등 신규 오픈 레고·게임존 등 체험공간 신설

이마트 광주점이 체험형 콘텐츠를 강화한 점포 리뉴얼로 제2의 오픈을 준비한다.

28일 이마트에 따르면 최근 ‘고객의 시간을 점유’하고 ‘고객과 함께하는 공간’ 구성을 목표로 기존 점포 리뉴얼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점도 매장 내 쇼핑 고객들이 체험하기 좋고 트렌디하면서 가성비도 함께 충족시킬 테넌트(입점업체)를 신규 유치하는 등의 리뉴얼 작업을 진행했다.

이마트 광주점은 1650평 규모였던 이마트 비식품매장을 775평 축소해 875평 매장으로 압축했으며 다이소, 올리브영, 슈즈 멀티샵 등 신규 브랜드를 도입하며 ‘체험형’ 콘텐츠를 강화했다.

또 이마트의 강점인 ‘그로서리(식품)’ 직영매장은 프리미엄 품종 확대 등 운영 상품을 더욱 다양화하고, 고객 관점의 매장 구성과 상품 진열을 확대했다.

이마트 광주점은 지난 27일 340여평 규모로 다이소 매장을 오픈했으며 다음달 10일에는 60평 규모 올리브영이 신규 입점한다. 다이소 광주점은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지인에게 선물하기도 좋고, 가성비 높게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상품들도 구성했다.

이와 함께 이마트 광주점은 기존 완구매장을 레고 체험형 존과 게임 존을 신설



이마트 광주점이 체험형 콘텐츠를 강화한 점포 리뉴얼을 진행했다. 사진은 광주점 내 레고 체험존의 모습. 이마트 광주점 제공

했다.

상품 판매용 공간이 주를 이루던 기존 완구매장과 달리, 레고 체험형 공간과 게임 존을 늘려 아이들이 머무르고 싶은 공간과 분위기를 조성했다.

리뉴얼 오픈을 맞아 고객들이 풍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도 준비했다.

지난 26일부터 제품 소진 시까지 7만원 이상(이마트e/삼성카드) 결제 시 잔라면(5입)증정행사(1인1개/ 3500개 한정)를 진행한다.

패션 브랜드 아가방과 폴햄키즈도 오픈

행사에 동참했다. 아가방은 오는 5월9일까지 10만원 이상 결제 시, 퓨토 트래블 키트 증정과 폴햄키즈는 26일부터 소진 시까지 오가닉티셔츠를 5000원대 이하 특가상품으로 판매한다.

조성미 이마트 리징담당 라이프스타일 팀장은 “이마트 광주점에 다이소, 올리브영 등 고객 맞춤형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유치했다”며 “향후에도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차별화 포인트인 ‘체험’에 집중해 고객들이 이마트에서 쇼핑하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테넌트를 도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 광주디자인진흥원 ‘아이디어 발굴 연구회’ 운영

### 디자인·제조기업 12개팀 신청 해외연수·마케팅·사업화 지원

광주디자인진흥원은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상품 아이디어 발굴, 신규 사업과제 연구기회를 위한 ‘아이디어 발굴 연구회’를 본격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아이디어 발굴 연구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2024 서남권 디자인사업화 기반구축 사업’ 일환으로 이업종 간 협업을 통해 미래 기술 및 시장 동향 등을 분석하고, 특화기술을 바탕으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제품개발 아이디어 등을 발

굴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광주, 제주 등 지역 디자인 전문기업과 제조기업 현장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12개 협업팀, 43명이 연구회 참여 신청을 마쳤다. 이는 지난해 연구회 4개팀, 15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주요 연구 과제는 △기술과 미래 라이프스타일 융합 가전 디자인 개발(쥬디에 이치글로브-쥬디자인바이 등) △미래형 스마트홈(쥬쌍디디자인그룹-쥬감성) △사용자 경험 중심의 IoT 융복합제품(쥬제주전자-쥬고은 등) △AI기반 디자인 및 인쇄 산업의 상생전략 연구(쥬빌리언즈-디자인팝업 등) 등이다.

12개 연구팀은 오는 5월31일까지 중소기업, 디자인기업, 전문가 등이 모여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목표 시장 및 기술 조사 분석,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구체화 등을 진행한다.

디자인진흥원은 연구회 운영을 통해 미래 상품·서비스 아이디어 50건 이상을 발굴할 예정이다.

또 연구회 참여팀에게는 소정의 보상을 지급하고, 우수 연구팀(1개)은 해외연수도 지원한다. 연구회를 통해 발굴된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콘셉트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소영 기자